

페이불·의류 15t…지역사회 살리는 지원 됐다

광산구 민관 협력 '꼬꼬무 지원순환' 사업 성과

수익금·기부금 800만원 전달…나눔·복지 확산

벼려진 이불과 현옷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지원으로 재활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광산구는 27일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원순환 나눔 활동(꼬꼬무 지원순환)'을 통해 지난해 페이불과 의류 등 15t 이상을 재활용하고, 수익금과 기부금을 합쳐 총 800만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이날 청사 상황실에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월례회의와 연계해 '꼬꼬무 지원순환' 수익금 전달식을 열고,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꼬꼬무 지원순환'은 광산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지티월드, 투게더광산) 사업으로, 소각 등 처리가 어려운 폐이불과 폐의류를 수거해 재활용하고 그 수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다.

지난해 4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광산구 전역에서 페이불 약 13t과 의류 2.1t 등 총 15.2t를 수거·재활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마련된 1차 수익금 100만 원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에 사용됐으며, 이날 전달식에서는 2차 수익금 100만원과 주지티월드의 기부금 600만원을 더한 총 700만원이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전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꼬꼬무 지원순환' 활동을 통해 조성된 지역 환원금은 총 800만원으로 늘었으며, 해당 기금은 돌봄 이웃 지원 등 ESG(환경·사회·지역) 특화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원순환이라는 환경 실천이 나눔과 복지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 중립과 사회공헌을 함께 실현하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광산구는 27일 청사 상황실에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월례회의와 연계해 '꼬꼬무 지원순환' 수익금 전달식을 열고,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에서 전남지역 가축시장 운영 축협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가축시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매뉴얼 표준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협 전남본부, 신뢰받는 가축시장 운영 방안 모색

축협 실무자 간담회…안전사고 예방 업무매뉴얼 표준화 논의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에서 전남지역 가축시장 운영 축협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가축시장 운영 과정에 대한 실무 중심의 논의가 이뤄졌다.

서 발행할 수 있는 각종 민원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매뉴얼 표준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축시장 민원 유형별 대응 절차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보고 체계 △가축시장 운영 관련 업무 처리 방안 등 가축시장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의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고를 공유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짚고,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방역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본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했다.

민원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매뉴얼을 표준화하고, 빠른 시일 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자 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접점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광일 본부장은 "신뢰받는 가축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업무매뉴얼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가축시장은 축산농가가 직접 이용하는 공간이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호 기자 photo25@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생명 나눔' 단체 협력 눈길

동절기 혈액 수급 위기 극복

동절기에 부족한 혈액 공급망을 확보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진흥원 나주 본원 주차장에 마련된 대한적십자 혈액 버스에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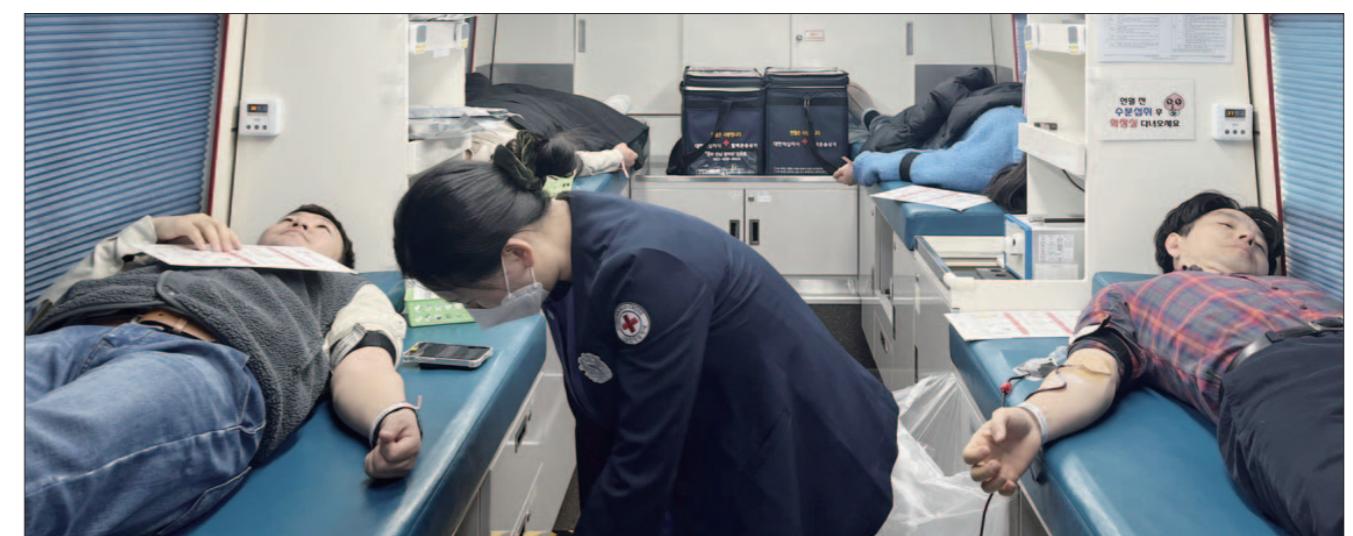
진흥원은 비쁜 업무 중에도 임직원들이 부담 없이 생명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 여건을 조성했다.

임직원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대기 방학 등으로 인해 혈액 기부를 급감하는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혈액에 동참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했다.

이인용 원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은기가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헌혈은 생명을 나누는 가장 직접적이고 봉사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상생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대한적십자사와 함께하는 단체 혈액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주 북부경찰 두암지구대, 범죄취약지 순찰

노현정 주무관

1월 '으뜸 광주세관인' 선정

광주본부세관은 1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노현정 주무관(사진)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노 주무관은 현장 방문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입 안전 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AEO 공인 확대 기반을 마련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주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전남대병원, '제1기 급성기 정진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24시간 정신응급 환자 대응·고밀도 밀착 치료 제공

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1기 1차 급성기 정진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급성기 정진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사업은 자·타해 위험이 높거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정진질환 환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해 빠른 회복을 돋우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제도다.

전남대병원은 이번 지정을 통해 급성기 정진질환자를 위한 전용 병상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맞춤형 집중 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초기부터

고빈도의 밀착 치료를 시행할 예정이다.

급성기 정진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정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간호사 등 인력 기준 충족 △급성기 치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집중치료병원 운영 계획 등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그동안 전남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해 24시간 정신응급 환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다 진료과와의 협진 체계가 원활해 신체적 질환에 동반된 정신질환 환자 치료에도 강점을 보여왔다.

전남대병원은 이번 집중치료병원 지정으로 정신응급 환자의 신속한 입원과 집중적인 약물 및 상담 치료가 더욱 체계화

이상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신 원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급성기 정진질환 집



광주북부경찰 두암지구대는 범죄 취약지 지안 강화를 위해 두암2동 자율방범대와 함께 협동순찰 활동을 실시했다.